



4면

'아시아 평화·발전 업적 인정'

전주매일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음 7월 30일) 제33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 '한목소리'

민주-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전북특자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현안 해결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는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총은지방정부위원장, 서상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으며, 국부추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국토부에 지시했다"며, 이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희생양 삼으려는 정부 여당의 터무니없는 '새만금 흔들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타지역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산 반영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 전북의 굵직한 현안들은 빠졌다"며,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전북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국가과제로 추진해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 프로젝트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은 새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위기에 처한 새만금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새만금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1월 전북특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 제정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현 전북특별법은 선연적 조항에 불과하여 농생명·그린에너지·케이(K)·문화 등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연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 새만금 예산을 살리기 위해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의 사발과 규탄이 있었고 이는 가장 진정성 있는 항의 표시라 생각하며, 그만큼 이번 시간이 터무니 없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예산독재임이 분명하다"며,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 개발은 국토 균형발전의 철학이 담겨 있고 전북도민들의 피와 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룰 국책사업인 바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와 함께 전북도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민주당이 꼼꼼이 챙겨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임을 강조하며, 당 차원에서 전북도민께 약속한 경제발전과 민생안정, 전북의 새로운 도약과 상승을 뒷받침할 국가예산 확보에 강력한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사업과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립후배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케이(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반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 및 검증을 통한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와 국비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서 지역·연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사업 예산 현황을 설명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국회 단계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휘부를 비롯해 실국장 중심으로 국회 및 기재부 대상으로 전방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소외계층 지원... 16일 '전북 사랑나눔잔치'

전북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제2회 전라북도 사랑나눔잔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행사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정미)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도내 여성단체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35개 단체가 참여해 시군 대표 특산품과 환경을 생각하는 천연제품을 판매하고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한다.

또한, 헤어쇼 전시(대한미용사회), 혈압 및 혈당 체크와 생활습관병 예방 안내(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 등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주지회가 함께 참여해 문구 및 책, 장난감 등 아나바다 장터도 운영할 계획이며 아이들을 위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장터도 마련돼 있다. /김재훈 기자

'전성기 누리는 전북 창업라이프'

<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 만들자>

전북 창업대전 개막... 15일까지 전라강명서
기업전시·창업 공모전 등 28개 프로그램 마련

전북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전북 창업대전'이 15일까지 3일간 전라강명서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 열리는 창업대전은 '전성기(전북에서 성공하는 기업 만들자)' 주제를 초기창업기업 정보제공,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3일 전라강명서에서 '제8회 전북 창업대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100여개 스타트업과 민간투자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과 유공자 포상, 라이크버머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 투자 파트너인 피앤피인베스트먼트와 엘엔에스벤처캐피탈은 전주의 정밀분석기 제조업체인 아이에스피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인라이트벤처스는 정읍에 터를 잡고 있는 건강식품 개발 제조 업체인 바이오엔(주)에게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북지역펀드 조성에 출자해 후배기업 육성에 동참하고 있는 전북은행, 성일하이텍, 비나텍 3개사와 투자사 불모지였던 전북에 사무실을 이전하여 지역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 민간투자사 크립톤(주)엔와이소셜컴퍼니, 엘엔에스벤처캐피탈 3개사 등 총 6개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올해 창업대전은 기업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전라북도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도내 창업관련기관 24개, 민간협력단체 12개, 투자사 19

개 등 55개 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창업, 투자, 놀이 3개 컨셉으로 우수기업 전시, 성공 특강, 라이크버머스, 창업 공모전, 투자 IR, 피칭데이, 네트워킹 등 2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기업의 투자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업설명회 기회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늘려 11회에 걸쳐 운영하고, 지역기업이 투자자와 밀착 네트워킹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밤'도 14일 밤에 열린다.

또한, 기업·기관별 축제가 아닌 도민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게임 체험, 메이커스 체험, 국악 공연, 청년 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각별한 의미를 담았다.

이번 창업대전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제8회 전북창업대전 홈페이지(www.jstart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welcome 2023 **익산 방문의 해 to IKSAN**

축! 전주매일 창간

2023 익산 서동축제

9.15.(금) ~ 9.17.(일)

익산 서동공원 일원 / 유등전시 11월 5일 까지

<무왕제례 : 9.14.(목) / 익산역 17:00>

서동축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축제장 주차장은 이용불가

<메인주차장>

- ▶미륵사지 주차장
- ▶보석박물관 주차장
- ▶공설운동장 주차장

*셔틀버스 수시운행